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9 16:33 수정 2021.10.09 20:33 호수 1605 댓글 0

새벽 4시 거창서 출발해 7시간 동안 27km 행선 해인사, 현수막 등 내걸어 순례단 힘찬 걸음 응원 주말 일일 참가자 크게 늘어...청규 동일하게 적용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홍류동 계곡 맑은 물소리를 벗 삼아 가야산 품에 들었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행선 정진을 시작한 지 꼭 9일 만인 이날 두 번째 성지인 법보종찰 해인사에 도착했다.

10월9일 새벽 4시 경남 거창을 출발한 순례단은 7시간 동안 27km를 행선해 해인사에 닿았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이날 9일차 일정을 회향함에 따라 마침내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9일간 순례단은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곡성, 구례, 전북 남원, 경남 함양, 거창, 합천까지 7개 시군을 지나며 총 223km를 걸었다.

이주연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철해여! 그대 오늘사 지워지지 않는 41년의 비로소 적조에 쉬게 되 상처...10·27법난 추

- 날마다좋은날, 세계 각국 불교영화 지역상영...
- 마곡사, 코로나 극복·국태민안 기원 '군왕대'...
- 용인 구만사, 방생법회 봉행
-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2021년 학술대회...
- 한국참선지도자협회, 6기 명상대강좌 수강생...
- 인천 용궁사, 10년 불사 원만 회향
- 일본교 위안부 피해자 위령재 봉행
- 해남 대흥사, 30회 초의문화제 개최

연재 < >

- 세심형심**
생일과 기일
- 나의 발심수행**
염불수행 전통표(53) - 상
-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8. 흥천사 무량수전에는 턱...
- 무진등**
구효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7. 목신들의 계승 판단법



이번 순례의 두 번째 목적지인 해인사를 목전에 둔 만큼 순례단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순례단은 걸음걸음에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량한 계곡 물소리를 따라 가야산 소리길에 들어섰다. 해인사는 '불교종흥 원력 바로 세우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구법의 천리길 해인사 사부대중이 응원합니다' 등 여러 현수막을 내걸어 순례단의 힘찬 걸음을 응원했다.

많이 본 뉴스

- 01 조계종 비구 66·비구니 16명, 대종사·명사 품서
- 02 “지역사찰 미래, 문화 콘텐츠 개발 여부에 달렸다”
- 03 본사주지 스님들, “불교평혜 정청래 의원 제명하라”
- 04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바로세워 자부심 높일 것”
- 05 기림사 전 주지 철해당 종광 스님 10월24일 원적
- 06 송영길 대표 “전통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타당...민주당 공식입장”
- 07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08 정청래, 이번엔 문화재관람료를 극장 관람료로 억지비유
- 09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10 “정청래 의원 공개참회까지 1인 시위 멈추지 않겠다”



7km의 소리길을 지나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한 순례단은 국화꽃으로 장엄된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걸으며 비로소 이곳이 법보종찰 해인사임을 실감했다. 법계도를 따라 화엄의 골수를 음미한 순례단은 곧바로 장경각의 팔만대장경을 친견했다. 고졸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판전 안에는 8만 개가 넘는 경판들이 800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도 판각 당시의 옛 모습 그대로 순례단을 맞이했다.

9일차 회향법회는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날 회주 자승 스님은 9일차 전 일정을 설판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에게 상월선원 천막결사 및 원력과 정진을 상징하는 죽비를 선물했다.



현응 스님은 죽비 삼성과 그 속에 담긴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스님은 “첫 번째 죽비 소리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해인사에 머무는 동안 잘 외호하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남은 여정 모두가 원만하게 회향하길 발원하는 소리이며, 세 번째는 순례의 공덕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태평하기를 염원하는 소리”라고 순례단의 앞날을 축원했다.

방장 원각 스님도 법어를 통해 순례단을 격려했다. 스님은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이 ‘불보’이고, 거기에서 나온 지혜가 ‘법보’이며, 그 바탕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승보’다”며 “삼보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마음자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삶, 지혜의 삶, 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순례에는 중앙신도회 임직원, 동국의료원 관계자, 학인스님 등 80여명이 1일 참가자로 참여했다. 1일 참가팀 팀장 이세용 조계사 중무실장은 “그동안 하루평균 10여명이 동참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로 80여명이 동참했고, 내일은 15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라며 “천리순례에 참여해 삼보사찰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순례단의 걸음에 힘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원력과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면서 “다만 행선 중 묵언과 정진,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청규는 1일 참가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합천=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5호 / 2021년 10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 식사 땀 오관계·축원례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전체겨나드라 소과사사 부끄즈후 바의 천리순례 처바 내디다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별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난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 ▶ 삼보사찰 천리순례, 수행·전법 새 장 열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⓪ BEST댓글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02-725-7010 | 팩스: 02-725-7017
법인명: (주)법보신문사 | 제호: 법보신문 | 등록번호: 서울 다 07229 | 등록일: 2005-11-29 | 발행일: 2005-11-29
발행인: 김형규 | 편집인: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
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E**